

뒤상·해링·무리조...해외 미술가들 겨울 화단 달군다

November 26, 2018 | 김경갑 기자

뒤상·해링·무리조...해외 미술가들 겨울 화단 달군다

주종하던 외국 화가의 작품전이 겨울 시즌을 맞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 화랑가와 미술관에는 전세계 개념미술의 선구자 마르셀 뒤상, 미디어 아티스트 하룬 파로(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작가 줄리앙 프라비유(트산재센터), 영국 아티스트 오스카 무리조(국립현대미술관) 등 해외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나 개막 준비 중이다. 팝아트, 난해한 개념미술, 첨단기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 추상화, 사진예술 등 장르도 다양하다.

◆해외 작가 유치전 치열한 화랑가
상업화랑들은 세계 미술시장에서 비교적 작품 거래가 활발한 해외 작가들의 유치를 열을 올리고 있다. 추식과 부동산 투자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외 미술품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학교재갤러리는 지난 22일 새로운 문을 연 '학교재창당'의 첫 전시로 영국 여성 작가 피오나 레를 전격 초대했다. 피오나 레가 1988년 '국제 미술계 축제' 데이미언 허스트가 기획한 전시 '프리즈'를 통해 데뷔한 데 이어 1990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한 점이 꼽혔다. 재색을 배제하고 붓 터치와 형상을 지워낸 일련 만화풍의 근작 11점을 걸어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망한다.

◆예술품을 유혹하는 미술관
국립현대, 뒤상 회고전 준비
DDP선 팝아트 가장 해링展
사프 개인전은 롯데뮤지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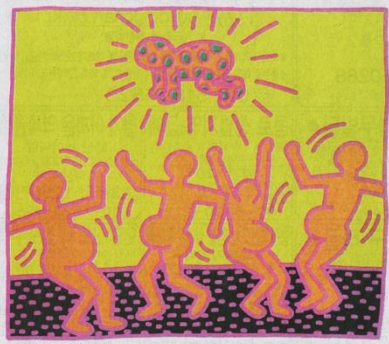
◆전시·판매전 치열한 화랑가
국제, 29일 오스카 무리조 초대
학교재창당 개관전엔 피오나 레
PKM은 대런 아몬드 개인전

◆국재갤러리는 올해 마지막 전시로 콜롬비아 태생의 영국 추상화가 오스카 무리조를 선택했다. 무리조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집한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작업으로 미국과 유럽 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무리조는 다양한 크기로 분열된 현 조각들을 모아 화면에 올린 뒤 유희와 물감을 부무린 추상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는 29일 전시 개막에 맞춰 병행하는 무리조는 국내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예정이다.

PKM갤러리는 사진과 회화, 조각을 넘나들며 작업하는 영국 작가 대런 아몬드를 8년 만에 다시 불렀다. 아몬드는 1997년 이른바 'yBa'(young British artists) 영국의 젊은 예술가그룹 추종자이자 거물 컬렉터인 찰스 사치가 마련한 전시 '영세 이션'에 최연소 작가로 참가하면서 월드스타로 떠올랐다. 다음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1988년부터 20년간 보물창 주기를 쫓아 이미지를 포착한 '풀문(fullmoon)' 시리즈를 비롯해 겨울 회화 등 신작 10여 점을 걸었다. 바리앗 건넨포리(리니키 노주미), 리만머신 서울점(안젤오텔로), 페로탕서울(조시 스펠만) 등도 미술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외국 작가 전시 마케팅에 가세했다.

◆팝아트 가장 해링과 미술 혁신가 뒤상
현대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가들의 불복버스티급 전시회도 겨울 화단에 예기 훑을 파우고 있다. 미국 팝아트의 슈퍼스타 키스 해링의 작품전은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 2층 디자인전시관에서 막을 올렸다.

서브한 삶에 에이즈로 짧은 생을 마감한 해링은 하위문화로 낙인찍힌 낙서와 영식을 빌려 간결한 선과 강렬한 원색,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다. 생전에 '예술은 삶, 삶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키스 해링 작품전에 소개된 '출산'.

은 곧 예술이다'라고 강조했던 그의 화두를 테마로 한 이번 전시에는 검은색 단순한 윤곽선과 강렬한 원색을 이용한, 마치 낙서 같은 그림을 비롯해 드로잉, 판화, 조각, 사진, 포스터, 엘빙 커버 등 175점이 걸렸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음달 22일부터 소격동 서울관에서 마르셀 뒤상의 회고전을 연다. 민상주의, 포비즘,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뒤상은 상식의 속박으로부터 영리한 해방을 꿈꿨던 미술 혁명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거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해외 미술가 국내 전시 일정

작가	장소	일정
마르셀 뒤상	국립현대미술관	12월22일 ~ 내년 4월7일
하룬 파로키	서울관	내년 4월7일까지
케니 사프	롯데뮤지엄	내년 3월3일까지
키스 해링	DDP디자인전시관	내년 3월17일까지
제바이스와 대환전	서울시예술품관	11월27일 ~ 내년 2월7일
줄리앙 프라비유	아트산재센터	내년 1월20일까지
크리스 카미런	대림미술관	내년 1월27일까지
키치호스텐	수원아트파크	11월28일 ~ 내년 3월3일
현대미술	미술관	~ 내년 1월6일
오스카 무리조	국재갤러리	11월29일 ~ 내년 1월6일
피오나 레	학교재창당	내년 1월20일까지
조시 스펠만	페로탕 서울	12월30일까지
대런 아몬드	PKM갤러리	12월30일까지
안젤 오텔로	리만머신 서울	12월22일까지
토니 클랙	유순갤러리	내년 2월2일까지

이번 전시에는 '샘'을 비롯해 아이키브, 사진 등 150여 점이 소개된다. 번기를 작품화한 '샘'처럼 주로 기성품을 활용한 관속적인 사고를 거부한 대가의 전시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 밖에 다류멘타리, 에세이 연화,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독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하룬 파로(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미국 팝아트의 대가 케니 사프(롯데뮤지엄), 상업적인 이 인간 신체 움직임에 미친 영향을 영상과 드로잉, 설치, 퍼포먼스 등을 통해 표현한 프랑스 작가 줄리앙 프라비유(트산재센터) 등의 전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